

공감 개념의 확장적 이해: 심리사회영적 이해

임윤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사회복지/상담 5-3)

논문초록

공감의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개념과 발달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공감을 단지 심리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측면으로 확장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공감의 기존연구들에서 공감의 특성들이 기독교적 측면인 영적 특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감의 영적 특성들은 하나님과의 질적 관계에서 오는 영적 성숙과 관련이 있다. 기존의 공감 연구의 개념과 발달을 조명한 결과 공감을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반응하는 능력으로서의 공감은 영적 영역, 즉 인간이 타인과 반응하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확장하여 보았다.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영적 초월이 필요하다. 즉 공감은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응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주제어: 공감, 영적 초월, 기독교 영성, 반응적 측면, 발달적 측면

I. 서론

학자들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공감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상담자의 공감적 관심과 돌봄은 내담자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며 더 나아가 내담자가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Asay and Lambert, 2004, pp. 33-34). 심리치료에서 공감은 내담자와 상담자를 연결시키며 내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공감 자체가 치료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hut(1959)은 공감을자기(self)의 발달적 측면에서 보았고 공감은 모든 심리학적 현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pp. 459-483). 그는 공감이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치료적 요소라고 믿었다. Rogers (1957)는 공감은 심리치료에서 내담자의 개념적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임을 강조했다.

공감에 대한 연구들에서 공감의 특성은 돌봄, 공휴,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가 포함된다(Thompson, 1987, pp.119-145; Hoffman,2000, p. 37; Barnett, 2001, pp. 241-250; Strayer and Roberts, 1997, pp. 385-403; Berger, 1987, pp. 5-8; and Underwood, 2002, pp. 72-87). 공감의 특성으로서 돌봄, 사랑, 용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공감할 때 필요한 자세 또는 태도와 관련된 개념들이다. 공휴는 공감의 정서적 측면이고 이해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나 개념들인 돌봄,공휴, 사랑, 이해 그리고 용서들은 공감의 여러 측면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감의 연구에서는 공감의 심리사회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감의 기독교적 측면인 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공감의 영적 특성들은 기독교의 영적 성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Hall & Edward (1996)에 따르면 한 사람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질적 관계를 통하여 결정된다(p. 233).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로서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을 통해서 자신의 상담자적 자질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고 내담자들의 영적 위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담자의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

공감을 단지 사회심리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영적 측면까지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공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서 기존 연구의 입장과 한계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공감을 영적으로 확장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성과 공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감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

1. 공감의 의미

공감의 단어는 독일어 *emfühlung* 유래했는데 영어로는 “feeling into”의 의미를 지닌다(Wispé, 1987, p.18). Tichner(1909)는 공감을 높은 정신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Wispé(1987)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공감의 정의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와 연구영역에 따라 다양하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공감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상담심리영역에서는 상담치료에서 공감의 효과와 역할에 중점을 둔다. 상담자의 공감이 상담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다. 또한 사회 심리학자들은 공감의 심리발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그들은 한 개인의 공감능력과 발달에 초점을 가진다(Hoffman, 2000, pp. 1-26). 전자에 따르면 공감은 자신의 감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공감자의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는 능력이다(Benner & Hill, 1999, p. 397). 후자는 공감을 사회적 존재인 인간을 타인의 감정적 고통에 연결시켜주는 선천적 반응이라고 정의한다(Zahn-Waxler & Radke-Yarrow, 1990, p. 111).

심리상담 영역의 주된 관심사는 치료적 효과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들이 상담에서 치료적 변화를 가져다주는지를 알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치료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치료적 관계임을 연구조사는 말한다(Asay and Lambert, 2004, p. 133). 상담적 관계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이 연관된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상담장면에 가져옴을 볼 때 이러한 치료적 관계요소는 심리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치료적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Rogers의 내담자 중심치료와 더불어 발전되었다. Rogers의 이론에 따르면 치료적 관계를 위한 결정적 요인은 정확한 공감이다(Warner, 2001, p. 181). 치료적 관계에서 공감의 기능은 참여하기, 촉진시키기, 인정하기, 수용하기, 그리고 격려하기를 포함한다(Berger, 2002). 많은 연구조사들은 공감과 상담의 치료적 관계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Hartley, 1995, pp. 5-16; Holm, 1997, p. 131; Maione & Chenail, 2004, pp. 144-148). Kohut(1959)과 자기심리학 학자들은 상담자의 공감적 이해가 내담자의 자기개방을 촉진하며 생각의 관점을 바꾸도록 돕는다고 강조한다. 인본주의와 초개인(Tanspersonal)심리학자들은 내담자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넓히고 성장하는 일에 관심을 둔다. 내담자가 관점을 넓히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상담자의 공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구들은 공감이 상담의 치료적 요소이고 내담자 변화에 있어서 촉진제가 된다고 증명한다 (Silva, 2001, p. 173). 정신역동과 인본주의 학파는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공감적 관계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Clark,

2007, pp. 42-59). 공감의 개념은 심리치료 영역에 널리 적용되었으며 사용되고 있다. 공감은 단지 내담자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담자의 기술만은 아니다. 공감은 상담장면에서 상담자가 보여야 할 자질이다. 이 학파들은 공감을 심리치료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한다. 그 결과, 공감은 내담자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며 치료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요소로서 내담자의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 상태를 이해하는 기술로서도 사용된다고 제안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공감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을 강조하고 공감을 감정적 현상으로 본다(Mehrabian and Epstein, 1972, pp. 525-526; Kennett, 2002, pp. 340-345; Barnett, 2001, p. 242). 그들은 공감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필요들을 알도록 이끈다고 제안한다. 즉 감정적 관점의 공감적 과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명확하게 반응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다른 학자들은 공감의 인지적 입장을 강조하며 공감은 인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Wispé, 1986, p. 318; Lee and Ashby, 2001, 25). 인지적 입장의 공감은 자신의 인식능력과 관점 취하기를 주목한다. 공감의 개념 연구는 이와 같이 공감의 감정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두 가지 입장 모두 공감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기 때문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공감의 개념 연구에 대한 세 번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에 초점을, 두 번째 관점은 공감의 인지적 입장만을 보는 것에 반해 세 번째는 다측면적 입장이다. 이 입장은 공감의 감정적 입장과 인지적 입장 모두 포함한다. Davis(1996)는 공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 반응함과 관계되는 구성들의 집합이라고 말한다(p. 12). 구성들은 관점 취하기, 환상, 공감적 관심, 그리고 개인적 고통들이다. 관점취하기와 환상은 인지적 공감에 해당하고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감정적 공감에 해당한다. Davis(1996)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확한 감정적 그리고 인지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2. 공감 발달

쌍둥이 연구에서 쌍둥이들의 공감적 관심을 측정한 결과 이들의 공감적 관심이 유사함이 드러났고 그러므로 공감이 유전적 요소가 있음을 발표했다(Rushton et al., 1986, pp. 1192-1198; Zahn-Waxler et al., 1992, pp. 1038-1047; Robinson & Emde, 2001, pp. 123-126).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감은 잠정적으로 유전적 요소를 가지는 성격적 특성임을 나타낸다(Del Barrion et al., 2004, pp. 677-678). Hoffman(1977)은 공감의 성적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적이라고 말한다(pp. 295-321). 이에 대해 Lennon and Eisenberg (1987)는 남녀 성적차이에 관한 공감의 연구는 공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논쟁한다(pp. 195-197). 성 차이에 관한 유전적 공감의 비교연구는 공감의 감정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인지적 영역의 공감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연구들은 환경적요인들, 가령 가족 관계, 부모의 공감, 친구들 그리고 가족의 심리적 건 강상태로 인한 영향과 공감발달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 공감형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는데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공감이 잘 형성되기도 하고 형성되지 않 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한다(Quing Zhou et al., 2002, pp. 893-915; Kring & Bachorowski, 1999, pp. 585-188).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지닌다. 일반 적으로 유아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의 정서적 연결로 인 해 유아들은“애착심, 따뜻함, 감정적 유효성, 의존, 양육, 돌봄, 그리고 자비심”을 느낀다 (Zahn-Waxler & Radke-Yarrow, 1990, pp. 107-108). 연구가들에 따르면 공감형성은 매우 어릴 적 부터 발달한다(Hoffman, 2000, p. 4; Thompson & Gullone, 2003, p. 175).

Hoffman(2000)의 감정적 공감발달은 다섯 단계를 거쳐서 형성 된다 (pp. 36-58). 첫 번째로는 흉 내 내기(mimicking), 두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고전적 조 건형성,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 자신이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여 동요하 게 되는 직접적 연합, 언어를 묘사하여 상대를 위로하는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할 수용의 인지적 과정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단계다. Selman(1980)은 공감의 발달단계를 역할수용 모델로서 설명하는데 그의 공감적 개념은 인지적 영역의 공감을 의미한다(pp. 131-135). 역할수용 모델은 아동이 고통을 받는 다른 아동을 보며 인지적 인식을 통한 공감을 하는 단계들을 이룬다. 첫 번째 단계의 공감발달은 자아중심적 관점의 공감이고 두 번째는 사회 정보적 역할수용으로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다. 세 번째는 자기숙고의 역할 수 용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인식하는 단계다. 네 번째는 자연적인 역할 수용으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단계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이고 전 통적인 역할 수용 단계로서 사람들마다 복잡한 자기체계(self system)가 있음을 이해하는 단계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아동의 공감발달은 아동의 다른 발달영역과 더불어 발달한다고 본다. 역할수용 모델을 연구하는 Damon(1986)은 공감은 신체 발달처럼 자연적으로 발달한다고 보지 않는다(pp. 131-135). 초보적인 공감이 누구에게나 내재해있더라도 공감 능력이 잘 발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 혹은 사회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도 공감발달의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이코패스(psychopath)는 공감능력이 거의 없는데 이는 아동의 발달에서 공 감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임윤희, 2009. pp. 252-254).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공 감능력을 가지고 있다(Damon, 1986, pp. 17-18; Holm, 1997, pp. 690-692). 어떤 사람들은 공감능력 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는 충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둔감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

3. 공감에 관한 기존 연구 분석

공감에 관한 기존 연구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공감의 개념에 관한 연구고 다른 하나는 공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다. 공감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공감이라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그리고 공감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공감과 인간의 특성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다. 먼저 공감의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Tichner (1909)의 공감에 관한 정의 "공감은 높은 정신의 과정"은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을 한번에 표현한 개념이다. 공감의 반응적 측면에 관해서는 Wispe(1987)의 정의와 Zahn-Waxler & Radke-Yarrow(1990)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공감에 대해서 상대방의 이해와 인식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연결시키는 선천적 반응이라고 정의를 함으로서 공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의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으로 다른 학자들은 공감의 능력적 측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Hoffman (2000)은 공감의 능력과 발달이라는 측면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Benner & Hill (1999)은 공감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상상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은 곧 상담 영역에서 치료적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담의 영역에서 Warner (2001)와 Berger (2002)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공감의 치료적 효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공감은 내담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감의 치료적 효과는 Clark(2007)와 Silva(2001)의 연구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공감의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 모두 요구된다. 요약해 보면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학자들은 공감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공감의 유전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Rushton et al., 1986, pp. 1192-1198; Zahn-Waxler et al., 1992, pp. 1038-1047; Robinson & Emde, 2001, pp.123-126)과 남녀의 공감 능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Lennon & Eisenberg, 1987)는 모두 공감의 선천적 능력에 관한 연구다. 공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Quing Zhou et al., 2002, pp. 893-915; Kring & Bachorowski, 1999, pp. 585-188)와 공감 발달의 단계에 관한 연구들 (Hoffman, 2000; Selman, 1980)은 모두 공감의 능력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공감 발달에 대한 연구들의 영역을 살펴보면 인간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유전적 요인들은 인간의 심리내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고 환경적 요인에 관한 내용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들이다. 공감발달은 특별히 유아와 부모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많은 공감의 발달이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공감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의 연구인 개념적 측면과 발달적 측면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공감은 심리적 측면으로 연구되거나 사회적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적 측면의 연구는 유전인자와 같은 선천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다. 즉 공감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심리사회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공감연구의 기존 관점을 확장하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영적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반응하는 대상은 타인인데 그 타인이 상담 영역에서는 주로 내담자이며 공감발달 측면에서는 부모가 된다. 그러나 그 타인을 영적 대상인 하나님으로 두면 공감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력이라는 영적 현상이 된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공감은 영적 영역에서는 이미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다.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과 하나되는 친밀한 관계(Hall & Edwards, 1995, p. 235; Howard, McMinn, Bissell, & Faries, 2000)로 정의된다. 절대자인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이 곧 영적 초월이다 (Piedmont, 2005, p. 5). 영적 성숙은 인간이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하나되는 현상을 말한다.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필요하다. 하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반응이다. 하나님과 하나되는 영적 성숙은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응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공감의 일반적 정의인 반응하는 능력에 능력의 종류인 초월과 반응의 대상인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공감은 심리사회적 영역을 넘어서 영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다. 공감의 영적 영역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영성과 초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III. 공감에 대한 영적 이해

1. 기독교 영성의 의미

최근 심리학 영역에서도 인간의 영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 2000)에 “종교적 혹은 영적 문제들”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인간의 영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p. 741). 이제 인간의 영성은 기독교 상담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모든 일반 영성은 그들만의 정의가 있다. 영성의 정의에 따라 영적 자질들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 기독교 영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심을 말한다. Benner(1992)는 기독교 영성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p. 173).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

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창세기 1:26, 27; 야고보서3:9).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의 도덕성, 영성, 정신적 세계, 관계성, 그리고 육적 현실에 반영된다(Erickson, 2005, pp. 520-531).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 중 일부가 관계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Hall & Edwards, 1996, p. 235).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일반 상담과는 달리 기독교 상담은 관계를 두 가지 차원으로 본다. 하나는 개인과 타인과의 수평적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다(김용태, 2004, p. 31). 개인의 영성은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즉 높은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초월이 필요하다(Collins, 2000, p. 356). 영적 초월은 자신의 관심을 넘어서는 행위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Piedmont(2005)는 영적 초월이 잘 되는 사람은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된다고 말한다. Seidlitz(2002)와 그의 동료들은 영적 초월은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관점임을 주장한다(pp. 439-443). 그들은 영적 초월은 개인의 “자기 인식, 감정, 목표,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말한다(p. 439).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이 있어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는 영적 초월 행위가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적 초월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그리고 감정적 상태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달 현상으로서 초월

Conn(1998)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기 초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태어난다(p. 38). 개인의 발달은 신체, 심리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 부분등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나며 이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진다. 영적 초월은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생각을 통해 나타나고 초월은 이러한 발달 현상이다. 아동이 자기중심성을 보이다가 발달을 이루어가면서 점점 객관성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초월이다. 발달의 과정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초월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람이 더 커진다. 이렇게 커진 사람은 초월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과정을 잘 이해한다. 어른이 아동들을 이해하는 일이 아동이 어른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쉬운 이유는 바로 초월의 특성 때문이다.

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와 영적 상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Roberts, 2006, pp. 132-135; Worthington, 2006, pp. 34-39; Hall, 2004, pp. 66-68). 영적 초월이 잘 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다. Hall & Edwards(1996)는 기독교 영성을 관계적 차원에서 본다. 그들은 영적 발달은 개인의 인식능력과 더불어 발달하며 타인과 어떠한 질적 관계를 형성하는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말한다. 초월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영적 인식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에 작은 인간은 초월을 함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한다. 영적 초월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 하려면 깊은 영적 인식이 필요하다(Hall & Edwards, 1996, 236). 영적 초월이 일어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영적 초월의 발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도 자라게 된다. 영적 초월의 또 다른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은 각 개인의 심리적 발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영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이 함께 일어남을 볼 때, 심리적 발달을 살펴봄으로 관계의 질적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 중 하나는 대상관계이론이다.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고 건강한 관계와 건강하지 않은 관계형성은 그 사람의 발달적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Guntrip, 1969, p. 328). 유아시절의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관계형성의 기반이 된다. 어릴적 유아가 부모와 어떠한 관계의 경험을 가졌느냐가 미래의 관계 형태와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부모의 형상 (image)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 갖게 되는 형상과 유사하다고 많은 연구들이 보고한 바 있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아버지가 있는 아동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고 벌주시는 분으로 인지한다. 대상관계이론에서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다. 자아의 형성은 유아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발달한다.

유아가 환경, 즉 부모로부터 질적 돌봄을 받으면 안정된 성격으로 발달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아의 발달과정은 부모로부터 어떤 종류의 돌봄을 받는가에 따라 다음 단계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 안정된 관계에서 유아는 한 사람 안에 좋은 형상과 나쁜 형상이 모두 존재하며 그 둘을 통합하는 발달과정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나 충돌이 생겼을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또한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닌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현실적 지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Hall & Edwards, 1996, pp. 237-238).

유아가 질적 돌봄, 즉 “good enough mothering”(Horner, 1991, p. 11)을 공급받지 못하면 발달과정에서 좋은 형상과 나쁜 형상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인이 되면 투사를 통해 자신의 나쁜 형상들이 통합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게 된다. 이렇게 투사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안정되지 못한 관계를 발달시키게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도 불안, 걱정, 그리고 두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투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한다. 영적 초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월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한다.

이상은 영적 초월현상을 대상관계이론의 관계적 심리발달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영성의 발달은 심리적 발달과 더불어 형성됨을 볼 때 심리적 관계형성의 기저가 되는 요소는 부모의 돌봄의 질이다. 초월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이고 통합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합된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초월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한 인식능력이 낮고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통합되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많다. 영적으로 초월을 이루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속되는 가치로운 관계를 이어간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3. 초월의 의미

인간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와 관계를 맺고자 열망하는 존재다(Nye, 2004). 초월은 성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Grudem, 2000, pp. 396-398).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에 뿌리를 둔다(Grudem, 2000, p. 755; Garrett, 2001, p. 397). 인간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 초월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경건의 노력들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뛰어 넘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동기가 자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닌 자기희생에 있다(Erickson, 2005, pp. 44-45).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우려 경건의 특성들을 삶에서 이루어나가고 또 영적 자질들을 키우도록 성경은 요구한다(베드로 후서 1: 5-7). 크리스천은 경건한 성품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한다.

관계에 있어서 영적 초월은 두 개의 방향성을 갖는다(Kim, 2000). 수직적 초월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수평적 초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영적 초월은 일회적이지 않고 성화의 개념과 같이 지속적이다.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인간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타인중심의 삶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이 일어난다. 이러한 변형을 통하여 그 사람은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인식들과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게 된다. 변형을 통해 생긴 인식과 관점으로 인해 타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범주확장 현상이다(김용태, 2004, pp. 29-31).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신의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 느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 안에서 받아들인다. 수평적 초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주확장을 하는 사람은 수평적 초월을 통해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직적 초월을 통해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된다. 자신의 시야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보는 범주가 확장된다.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볼 때 사람과의 관계 영역 안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영역까지 확장시킨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의 영역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점으로 보려는 시도를 한다. 이것은 영적 초월인데, 초월을 통해서 범주가 신적 영역까지 확장된 현상이다.

인간은 그들의 한계상황에서 신을 찾는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영적 초월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자신보다 큰 존재인 하나님께 의지한다. 이때 범주확장이 일어나고 그 결과 평안을 누린다.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은 성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화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나타난다(Grudem, 2000, p. 756). 성화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반영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서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간다. 성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되며 사랑, 기쁨, 평화 그리고 인내의 감정들이 생긴다(Erickson, 2005, pp. 890-891). 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 감정들보다 주로 부정적 감정들, 분노, 불안, 두려움, 걱정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산다.

IV. 공감과 초월

1. 공감의 신학적 측면

성경은 공감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공감의 의미는 성경전반에 나타나 있다. Farley(1996)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휼의 성품을 신성한 공감(divine empathy)이라고 언급한다(pp. 300-310). 공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으로 인간과의 관계에 강한 동기부여를 나타낸다(Beck, 1999, p. 89). 하나님은 구원사역의 완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공휼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공휼하심에 대한 직접적 구절들이 성경에 많다(마태복음 23:23; 누가복음 1: 50, 72).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억압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아픈 병자를 불쌍히 여겨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공휼, 동정, 자비의 단어는 모두 그리스어 “eleos”에 기인한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에 대해 나타나 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생각의 동기들을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경험적으로 직접 인간이 되심으로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다(Guthrie, 2003, p. 111). 유사한 구절로 히브리서 4장 15-16절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sympathize)분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어려운 마음을 도우시기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셨고 또 유혹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 그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그의 신성을 결코 잃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또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기독교 교리에서 보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또 온전한 하나님이다. 공감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6-7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공호와 자비가 내면의 감정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공호와 자비의 감정을 마음 안에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내셨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행동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은 내재된 감정이 도움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자비의 감정과 자기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나타난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요한복음 11장 36-38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다. 문둥병 걸린 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낮게 되기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공호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를 향해 팔을 내미셨다(마가복음 1: 40-41).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희생적 사랑과 공호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Erickson(2005)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곧 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p. 635).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와 사랑을 할 수 없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만족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타인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2. 초월의 공감적 측면

반응하는 능력으로서 공감은 초월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영적 초월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현상이다. Conn(1988)이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초월적 능력(p. 38)은 영적 초월의 능력적 측면이다. 영적 초월의 능력적 측면은 성장하고 자라는 발달적 현상이다. 인간에게 하나님과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공감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주어져있다. 이는 공감이 단지 사람과 사람사이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공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영적 상태와 심리적 상태에 대한 기존의 공감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Roberts, 2006, pp. 132-135; Worthington, 2006, pp. 34-39; Hall, 2004, pp. 66-68). 즉 인간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초월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아가 부모와 공감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부모를 닮아가는 현상과 비슷하다. 유아가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를 더 공감하면서 공감을 발달시킨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반응하는 현상으로서 영적 초월은 범주 확장을 통해서 설명되어지며 더욱 분명해진다. 인간이 하나님과 공감을 통해서 성화를 해나갈 때 범주 확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김용태, 2004, pp. 29-31). 이런 의미에서 범주 확장은 자신의 영역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는 현상이다. 하나님은 범주를 확장할 필요가 없는 분이므로 그 자체로 이미 세상과 우주를 품으셨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를 인간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 주셨을 뿐이다. 즉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신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적 초월을 통해서 자신의 범주를 확장해나간다. 범주를 확장하면 그 결과 인간은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수직적 초월로서 하나님과 공감을 하면 동시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수평적 초월을 하게 된다. 즉 영적 초월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적 사람이 된다.

V. 결론

공감의 기존연구들은 살펴보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공감을 이해하고 연구하였다. 하지만 공감의 특성들에는 기독교적 개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 저자는 공감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영적측면으로 확장해서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공감의 기존연구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즉 개념과 발달적 입장이며 공감의 개념을 공감의 특성과 연결하였다. 공감의 발달적 입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으로 공감을 이해하고 연구한다. 공감의 개념을 반응적 측면과 능력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때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반응하는 능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이해하였다. 공감의 능력적 측면은 발달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감발달은 관계를 통하여 성장한다. 환경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공급받음으로 공감능력은 발달한다. 반응하는 능력으로서의 공감은 영적 대상인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으로 영적현상이다.

영적초월을 통한 영적 성숙은 인간을 현재의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든다. 사람이 발달을 통해서 또는 초월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입장이 곧 영적 초월이다. 영적 초월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적으로 보면 명백해진다. 아이들이 부모라는 더 큰 존재들과 관계를 하면서 공감능력이 발달한다. 이때의 공감능력은 인지적이면서 감정적 인식능력을 말한다. 다른 말로하면 아이들은 부모라는 더 큰 존재와 관계함으로써 이러한 능력들이 발달한다. 만일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부모보다 더 큰 존재들과 관계를 계속 맺게 된다면 이들의 공감능력은 더 발달을 하게 된다. 기독교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영적 초월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들은 내담자들로 하여금 더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용태(2004).“초월의 현상으로서의 범주확장.”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제 7호, 20-44.
- 임윤희. (2009). “Psychopath: 반사회적 성격의 현황과 공감발달의 기독교적 접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 18호, 239-262.
- Asay, Ted. P. and Lambert, Michael J. (2004). “The Empirical Case for the Common Factors in Therapy,” in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What Works in Therapy*, ed. Mark A. Hubble, Barry Duncan and Scott D. Mill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Aluja, Anton., Del. Barrio, Victora., and Luis Garcia, F.(2004).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in a Sample of Spanish Adolesc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2, no. 7, 677-683.
- Barnett, M. A.(2001). “Similarity of Experience and Empathy in Preschoole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5, no. 2, 241-250.
- Beck, J. R. (1999). *Jesus and Personality Theo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 Benner, D. G. (2005). *Desiring God's Will*. Downer Grove, IL: InterVaristy Press.
- Benner., D. G. & Hill, P.C. (1999). *Baker Encyclopedia of Psychology & Counseling*, 2nd Michigan: Baker Books House.
- Berger, D. G. (1987). *Clinical Empathy*. North vale and London: Jason Sronson, Inc.
- Clark, A. J. (2007). *Empathy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avis. M. H. (1996). *Empathy*. Oxford: WestView Press.
- Erickson, M. J.(2005). *Christian Theology*, 2nde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 Farley, Edward (1996). *Divine Empathy: A Theolog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 Garrett, Jr. J. L (2001). *Systematic Theology*, vol.1 and 2, 2nd ed. Texas: BIBAL Press.
- Grudem, Wayne(2000).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 Guntrip, Harry (1969). “Religion in Relation to Personal Integration.”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42, 328.
- Guthrie, G. H. (2003).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Hebrews*, ed. Terry Much. Grand Rapids, MI: Zondervan.
- Hall, T. W. and Edwards, K. J.(1996). “The Initial Development and Factor Analysi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Inventor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4, no. 3, 233-246.
- Hall, T. H.(2004). “Christian 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A Relational Spirituality Paradigm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3, no. 1, 66-68.
- Hartley, G. D. (1995). “Empathy in the Counseling Process: The Role of Counselor Understanding in Client Change.” *Journal of Humanistic Education and Development* 34 (September): 15-16.
- Hoffman, M. L.(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77).“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8,

- 295-321.
- Horner, A. J.(1991). *Psychoanalytic Object Relations Theory*. Northvale: Jason Aronson.
- Holm, Olle(1997). "Ratings of Empathic Communication: Does Experience Make a Differenc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1, no. 6: 680-782.
- Jacobs, J. L.(2000). "The Spiritual Self-In-Relation: Empathy and the Construction of Spirituality among Modern Descendants of the Spanish Crypto-Jew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9, no.1, 53-62.
- Kohut, Heinz (1959). "Introspection, Empathy, and Psychoanalysis: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de of Observation and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7. 459-483.
- Kennett, Janette (2002). "Autism, Empathy, and Moral Agenc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52, no. 208 (July): 340-405.
- Lee, Peter and Ashby, Rosalyn (2001). "Empathy, Perspective Taking, and Rational Understanding." in *Historical Empathy and Perspective Taking in the Social Studies*, ed. O.L. David Jr. Elizabeth Ann Yeager, and Stuart J. Foster. New York: Rowan and Little fiend Publishers, 25.
- Lennon, Randy and Eisenberg, Nancy (1987).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Empathy and Sympathy." in *Empathy and Its Development*, ed. Nancy Eisenberg and Janet Strayer, 195-9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ione, P. V. and Chenail,R. J. (2004) "Qualitative Inquiry in Psychotherapy." in *The Heart and Soul of Change: What Works in Therapy*, ed. Mark Hubble, Barry L. Duncan, and Scott D. Miller, 63-6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ehrabian, Albert and Epstein, Norman(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no. 4 (December): 525-26.
- Nye, Rebecca (2004). *Christian Perspectives on Children's Spirituality*. In Donald Ratcliff, Children's Spirituality, 93-100. Oregon: Cascade Books.
- Rogers. Carl. P.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no. 2, 99.
- Robinson,J. L. and Emde, R. N.(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win Study." in *Infancy to Early Childhoo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Developmental Change*, ed. Robert N. Emde and John K. Hewitt, 123-1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 Robert (2006). "Wisdom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5, no. 2, 132-135.
- Rushton, J. P., Fulker, D. W., Neale, M. C.D., Nias, K. B., and H. J. Eysenck. (1986). "Altruism and Aggression: The Heritabilit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 1192-1198.
- Seidlitz, Larry., Abernethy, A.D., Duberstein, P.R., Evinger, J.S., Chang, Teresa, H., and Lewis B. L.(2002). "Development of the Spiritual Transcendence Index."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 no. 3, 439-443.
- Silver, N. W. (2001). "Effects on Empathy Training on Masters-Level Counseling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3, no.01B
- Strayer, Janet and Roberts, William.(1997). "Children's Personal Distance and Their

- Empathy: Indices of Interpersonal Clos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0, no. 3, 385-403.
- Thompson, K. L. and Gullone, Eleonora (2003). "Promotion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through Humane Education." *Australian Psychologist* November, 175.
- Titchener, E. B. (1909). *Elementary Psychology of the Thought Process*. New York: Macmillan.
- Underwood, L. G. (2002). "The Human Experience of Compassionate Love," in *Altruism and Altruistic Love*, ed. Stephen G. Post et 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arner, M. S. (2001). "Empathy, Relational Depth and Difficult Client Process." in *Empathy*, vol. 2, ed. Sheila Haugh and Tony Merry, 181. Somerset, UK: PCCS Books.
- Wispé, Lauren (1987). "History of the Concept of Empathy." in *Empathy and Its Development*, ed. Nancy Eisenberg and Janet Strayer, 17-3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986). "The Distinction between Sympathy and Empathy: To Call Forth a Concept, A Word is Need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No. 2, 318.
- Worthington, E. L. (2006). "Interpersonal Forgiveness as an Example of Loving One's Enemi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4, no. 1, 34-39.
- Zahn-Waxler, Carolyn and Radke-Yarrow, Marian (1990). "The Origin of Empathic Concern." *Motivation and Emotion* 14, no. 2 (June): 107-111.
- Zahn-Waxler, Carolyn., Robinson, J. L., and Emde, R. N. (1992).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Tw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38-1047.